**수출기업으로 우뚝 선 GS칼텍스**

GS칼텍스는 1967년 5월 국내 최초의 민간정유회사로 출범한 이래 반세기 동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정유 및 석유화학 생산시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석유 에너지의 1/3 이상을 공급하며, 국가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뿐만 아니라 GS칼텍스는 정유 및 석유화학, 윤활유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전체 매출액의 2/3 이상을 해외에 수출하는 대표적인 수출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2년 전체 매출액의 26% 수준이던 수출 비중이 2006년 50%를 넘어섰으며, 2012년 67%, 2013년 68.2%, 2014년 66.3%를 차지한데 이어 2015년에는 69%에 육박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2016년 상반기에도 계속 돼 상반기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이 70%에 달했다. 이러한 수출비중의 비약적인 증가는 적기 투자를 통한 고도화시설 확충 등 시설경쟁력 확보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GS칼텍스는 지난 2011년 국내 정유업계 최초이자 국내기업 가운데 두번째로 200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고, 2012년에는 250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다.

GS칼텍스 여수공장은 지난 1969년 하루 6만배럴 규모로 출발한 이래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석유시장의 변화에 발맞추어 적기에 투자를 지속함으로써 하루 78만5천 배럴의 정제능력과 27만 9천 배럴의 등∙경유 탈황시설 등 최첨단 시설에서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력을 갖추었다.

GS칼텍스는 전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청정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을 예측하고 중질유분해시설 확충을 통한 친환경적인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량을 늘려 이를 수출함으로써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GS칼텍스는 1995년 제1중질유분해시설(RFCC)을 비롯하여 2004년 이후 5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2007년 제2중질유분해시설(HCR), 2010년 제3중질유분해시설(VRHCR), 2013년 제4중질유분해시설(VGOFCC)을 완공하는 등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맞춰 고도화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하루 27만 4천배럴의 국내 최대규모의 고도화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Perfect Complex를 완성함으로써 최고의 배럴당 수익성을 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GS칼텍스는 고품질의 원유를 가장 유리한 조건에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싱가폴 법인과 런던, 아부다비에 지사를 설립하여 국제시장에서 외국 메이저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하고 있으며, 중동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호주, 유럽, 중남미 및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80여 유종의 다양한 원유를 도입하고 있다.

GS칼텍스는 석유화학사업 부문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을 중국 및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계에 수출하고 있다.

GS칼텍스는 1990년 제1파라자일렌 공장 및 제1 BTX 공장을 완공한 이후 방향족을 비롯한 석유화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투자를 지속하여 왔다. 그 결과로 GS칼텍스는 폴리에스테르 산업의 기초원료인 파라자일렌 135만톤과 합성수지 원료인 벤젠 93만톤을 비롯, 톨루엔 17만톤, 혼합자일렌 35만톤 등 연간 총 280만톤의 방향족 생산능력을 보유하여 세계적 수준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1988년 연산 12만톤 규모로 시작한 폴리프로필렌사업은 1989년 연산 18만톤 규모로 증설되었으며, 고품질의 폴리프로필렌 제품을 국내외에 공급하기 위해 2006년 중국 하북성 랑팡, 2010년 중국 쑤저우, 2011년 체코 등 중국 석유화학 시장은 물론 국내 최초로 유럽지역의 복합수지 사업에도 진출하였다.

특히, 2016년 2월에는 국내 복합수지 업계 최초로 멕시코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으며, 2017년 생산시설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GS칼텍스는 글로벌 복합수지 제조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GS칼텍스는 2010년 윤활유 인도법인 설립 및 2012년 중국법인과 모스크바 사무소 설립 등 활발한 해외시장 진출을 통하여 세계 여러 국가에 GS칼텍스 윤활유를 공급하고 있으며, 윤활기유 전체 생산물량의 70%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GS칼텍스는 윤활기유 생산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아시아의 선도적인 윤활기유 공급회사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GS칼텍스는 1969년 인천 윤활유공장 준공 이후 국내 윤활유 완제품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및 판매량 1위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제품력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왔다. 특히, 2007년 11월 하루 1만6천배럴의 윤활기유를 생산한 이래 현재 하루 2만6천배럴의 윤활기유 및 9천배럴의 윤활유제품, 연간 8천톤의 그리스 제품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듯 GS칼텍스는 세계 최고수준의 생산경쟁력 및 지속적인 투자,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GS칼텍스는 ‘Value No.1 Energy & Chemical Partner’라는 비전을 달성해 나가고 있다.